

전기로 인상에 산업계는 절전중

기아차 절감 캠페인·삼성전자 점심시간 소등 광주신세계·이마트 고효율 조명 교체 등 총력

정부가 다음달 전기료 인상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유통업체를 비롯한 지역 산업계가 에너지 절약에 힘쓰고 있다.

롯데백화점 광주점은 에너지 관리 TF팀을 꾸려 에너지 관리 아이디어 회의를 정기적으로 열고, 전기와 가스사용량을 관리하며 에너지 절감을 추진하고 있다.

매장 내 조명기구를 LED 등 고효율 조명으로 교체하고 전기사용 효율

을 높이기 위해 인버터를 도입, 연간 3000만원의 전기료를 절감하고 있다.

또 조명제어 릴레이 시스템을 구축해 중앙감시실에서 매장 내 모든 조명을 원격제어하면서 전력 낭비를 줄이고 있다.

이밖에 전직원 대중교통 이용, 임직원 차량 10부제 운행, 직원용 엘리베이터 격층 운행, 세면기 수압조절, 직원 명함과 광고전단 친환경 용기를 재활용 등 인체, 식품매장 일회용

용기 100% 옥수수 전분 포장재와 친환경 용기로 대체하는 등 에너지 절약운동을 다양하게 펼치고 있다.

광주신세계 백화점은 광고탑과 사인물의 점등시간을 30분~1시간 가량 단축하고, 매장 내 온도를 24~26도를 유지하는 등 에너지 절감 지침을 마련해 운영하고 있다.

이동시 컴퓨터 모니터 전원 끄기, 사무실 및 휴게실 한 끄기 등 직원들이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절약운동도 병행하고 있다.

이마트는 고효율 LED 조명으로 교체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롯데마트는 6월부터 무빙워크 운행속도를 기존보다 5~10% 가량 늦추는 등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산업특성상 전기 사용량이 많은 기아차 광주공장은 전력 소비를 줄이기 위해 전정조명을 효율이 높고 수명이 길어 산업현장에서 주로 사용되는 무전극램프로 교체했다. 또 소형 SUV인 스포티지R과 투싼의 플렉스(자동차의 뼈대)를 공유해 에너지와 전력 소비를 최소화하고 있다.

여름(6월~9월)에는 직원들이 티셔츠 근무복을 입는 등 간편한 복장으로 근무해 에어컨 사용량을 줄일 계획이다.

삼성전자 광주사업장은 여름휴가 분산을 검토중에 있다. 보통 7월 말~8월 초에 몰려 있는 휴가를 예비전력량이 떨어지는 8월 말로 조정하도록 권장해 전력난에 대비하고 있다.

/*박정욱·이은미기자 jwpark@

도내 유지 총출동 추진위 발족

광주권 지역경제 운동사 <17>

나주 호남비료 유지 도민운동 ②

▲거도적인 추진위 발족
나주비료공장 유지가 실패로 돌아가지 이문환 시장은 정부가 추진하는 비료공장의 유지를 포기하고 직접 회사를 설립, 내·외자를 조성하여 자체적으로 나주에 비료공장을 건설하는 계획을 추진했다.

이에 따라 1955년 12월 26일 자

중심이 되어 발족한 이 추진위는 도지사와 도의회, 자유당과 민주당 당원, 전남일보(현 광주일보의 전신)를 비롯한 5개 언론사, 도내 25개 시장·군수, 교육감, 경찰서장, 금융기관 등 무려 6백50명이 망라된 그야말로 거도적인 추진기구였던 것이다.

업의 대중을 이루고 있을 때까지만 해도 국가의 꼭창이요 재부(財府)였다. 그러던 것이 건국 후 1951년 4월 28일에 단행된 토지개혁으로 말미암아 지주들은 3정보(町步, 1정보=3천평) 이상의 농지를 소유할 수 없게 되었고 이를 초과하는 농토는 정부가 사들여 소작농들에게 3정보 한도내에서 유상분배를 했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지주들로부터 농지를 외상으로 사들이고 농지값은 그 농토의 연간 수확량의 150%를 쳐 주었다. 다시 말하면 한마지기엔 연간 쌀 2가마를 수확하는 논이라면 그 150%인 3가마를 논값으로 쳐 주었는데 그나마 일시불이 아니라 5년간에 걸쳐 연 30%씩 분할상환해 주기로 했던 것이다.

▲토지자본 몰락시킨 토지개혁
이는 그동안 축적된 지주들의 자본력을 일거에 무력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왜냐하면 지주들은 농지보상가가 당시의 거래시가에 현저히 못마치는 데다 그나마 5년에 걸쳐 쪼개어 받는 바람에 그때까지 지역자본의 막강한 구심력을 지니고 있던 지주들의 토지자본은 하루아침에 자투리돈이 되고 말았기 때문이다. 이는 단순한 지주자본의 몰락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역자본의 집중력을 무산시키므로써 산업화의 중대한 장애요인이 되었다.



위중 (연론인)

이문환시장, 비료공장 유지실패후 직접설립

개혁으로 구심점 잃은 토지자본 결집 기대

본금 3억원의 호남질소비료주식회사를 설립하고 정부로부터 서독의 민간자금 차관 승인을 받았다. 차관 규모는 요소비료 연간 8만 5000톤 규모의 공장건설 소요자금 2070만달러였다.

1957년 3월 9일에는 차관선인 서독에서 기술진이 내도, 나주일대의 현지를 답사했다. 4년전 비료공장을 총주로 빼앗긴 쓰라린 기억을 안고 있던 지역민들은 이번엔야말로 기필코 비료공장 건설의 꿈을 이루어야 한다는 열망이 불꽃였다. 이같은 지역민의 열망을 안고 출범한 것이 호남질소비료주식회사 나주공장건설추진위원회다.

독일의 기술진이 현지답사를 다녀간 다음달인 1957년 4월 20일 금호 박인환 광주상공회의소 회장을 비롯한 도내 유지·기관장들이

▲유치운동 보다 본질적인 배경
이는 비료공장 유지가 우리고장 지역민들에게 얼마나 절실하고 간절한 열망인가를 대외적으로 선포하는 의미를 지니기도 했지만 대내적으로는 무엇보다도 이를 관철하기 위한 상공인과 도민들의 의지를 결집하는 일이기도 했다.

당시 이 지역의 지도자들은 나주비료공장 유지의 당위성으로 이 지역의 지리적 이점을 강조했지만 이것이 전부 아니었다. 당시 이 지역의 지주 호호들이나 지도급 인사와 지식인들은 정부가 단행한 토지개혁으로 말미암아 지역경제의 구조적 기반이었던 토지자본이 붕괴되고 있는데 대한 불안감을 안고 있었다. 전통적으로 농도인 광주·전남의 지역경제는 원래 광활한 평야를 안고 있어 농업이 산

하이트진로, 9번째 사랑나눔

지역사랑기금 1850만원 모금회 기탁

하이트진로 주식회사(대표 이남수)는 29일 오후 광주광역시에서 지난 1월~3월에 조성된 광주전남사랑기금 9차 조성금 1850만원을 강운태 광주시장, 광주시회복지공동모금회 김상열 회장, 하이트진로(주) 성동욱 지점장이 참석한 가운데 기탁했다.

하이트진로(주) 광주지점은 참이슬 '情 나눔 지역사랑 캠페인' 일환으로 지난 2010년 1월부터 광주전남지역에서 판매되는 참이슬 1병당 2원씩 기금을 출연해 조성 목표액 2억원 달성시까지 행사를 진행한다.

하이트진로는 이미 8차례 걸쳐 조성된 성금 1억4233만5960원을 기탁했다.

지난 2010년 1월부터 2012년 3월까지 9차례 걸쳐 기탁된 1억 6083만 5960원은 사랑기금으로 광주시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전달돼 우리지역 결식아동 및 불우이웃 돕기 성금으로 쓰여지고 있다.

성동욱 하이트진로 광주지점장은 "情 나눔 지역사랑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소비자에게 다가가는 소비자에 사랑받는 기업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29일 오후 광주신세계 백화점 1층 상품권 숍에서 한 고객이 여수 엑스포 입장권을 구매하고 있다. (주)광주신세계 제공

광주신세계, 여수엑스포 입장권 판매

(주)광주신세계(대표 조창현)가 여수 엑스포 흥행지원에 나섰다. 29일 (주)광주신세계에 따르면 최근 여수엑스포 조직위원회와 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여수 엑스포 입장권 판매를 시작했다.

(주)광주신세계는 지난 24일부터 현재 입장권 150여 매, 약 500만원 상당을 판매했다.

여수 엑스포 입장권은 오는 7월 31일까지 (주)광주신세계 상품권 숍과

신세계 백화점 전국 점포에서 구매할 수 있으며, 가격은 성인(보통권) 3만 3000원, 청소년(“) 2만5000원이다.

조창현 (주)광주신세계 대표이사는 "신세계 백화점 전점에서 입장권을 판매하면서 전국민이 보다 쉽고 편하게 티켓을 구입할 수 있게 됐다"며 "여수 엑스포 관람객 유치는 물론 지역 대표 유통업체에게 타지역에서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은미기자 emlee@

금융기관 수신금리 하락세

년 3.7%...5개월 연속 ↓

은행을 비롯한 시중 금융기관의 수신금리가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한국은행이 29일 내놓은 '2012년 4월중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에 따르면 예금은행의 신규취급액 기준 저축성 수신금리는 연 3.70%로 전년(3.72%)보다 0.02%포인트 떨어졌다. 신규취급액 기준 저축성 수신금리는 2011년 12월(3.77%) 이후 계속

나타났다.

한은 관계자는 "당국의 가계부채 억제책으로 대출 여력이 줄어들어 수신금리까지 떨어진 것 같다"고 분석했다.

예금은행의 대출금리도 5.71%로 전년(5.74%)보다 떨어졌다. 이 가운데 기업대출 금리는 3월 5.79%에서 4월 5.76%로 낮아졌고, 가계대출 금리도 5.62%(3월)에서 5.54%(4월)로 내렸다.

예금은행의 잔액 기준 4월 총수신

금리는 전월과 같은 3.05%였다. 총대출금리는 5.93%로 전월보다 0.02%포인트 낮아졌다.

비은행 금융기관의 예금금리도 일제히 낮아졌다. 상호저축은행의 4월 중 예금금리는 4.47%(잠정치)로 전월보다 0.07%포인트 떨어졌다. 저축은행의 예금금리는 2011년 8월 5.35% 이후 하락세다.

신용협동조합과 상호금융의 4월 예금금리는 4.42%, 4.27%로 전월보다 각각 0.08%포인트, 0.01%포인트 떨어졌다.

저축은행의 대출금리는 연 15.56%로 전월(14.88%)에 비해 무려 0.68%포인트 올랐다.

/*연합뉴스

2012 여수세계엑스포기념 곡성기차마을 축제퍼레이드
Gokseong Train village Festival Parade

곡성 심진강기차마을

2012.5.1~8.12

볼 축제	2012 곡성세계장미축제	심청 호 가요축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32회 곡성군민의 날 (5.1) •기차마을 어린이 한마당축제 (5.5~5.6) •제2회 심진강 철길 철쭉축제 (5.12~5.13) •곡성세계장미축제기념 장미마라톤 및 걷기대회 (5.19~5.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세계명품장미와 만남 (5.25~5.28) •5백만송이 장미향기와 만남 (6.2~6.3) •1004장미 꼬마집자리 환경한마당 (6.9~6.10) •1004장미 농산물 콘서트 (6.16~6.17) •1004장미공원 7080콘서트(6.23~6.24) •1004장미공원 라이브 콘서트 (6.30~7.1) •1004장미공원 장미송 콘서트 (7.7~7.8)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차마을 어린이 가요제 (7.14~7.15) •심청 호 가요제 (7.21~7.22) •심청사당 가요제 (7.28~7.29) •심청가족 가요제 (8.4~8.5) •심청청정고을 가요제 (8.11~8.12)